**저마다의 길 : 여행의 끝에서 찾은 해답**

**CONLP**

그는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잃었고, 새로운 회사에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는 고난을 뚫고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는 그의 모습에 위로를 받았다. 그가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난 후에, 삶이 선택한 모든 것이 다 힘들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길 위에 놓인 죽음은 많은 것을 닮았으며 또 다른 생을 의미했다.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면, 그 길을 가는 그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만 종종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숨이 찰 것 같기도 하고,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한 없이 순수했고 무모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그는 죽음을 향해 달려갔으며 현재는 아름다운 사색에 들어갔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새롭고 또 다른 모습을 내게 보여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쳐버린 나는 새로운 것들을 위해 여행을 하려 한다.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 을 말할 자유를 얻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슴에 넣으며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듯 삶은 한 편의 동화 같다고 말한다. 수많은 행복한 일이 현실을 다투는 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동시에 삶의 지난 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 삶이라는 어느 한 부분의 형용만 남았을 뿐이라는 말이다. 왜 세상은 이렇게나 시끄럽고 엄청나게 바쁜 걸까.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내 머릿속은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떠날 건데 이미 지금 여행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니, 가슴에 콕 박힌 감정을 누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따라서 나는 혼자서 경비를 챙겨 떠나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선택했다. 이륙부터 도착 후, 도착에서 떠나는 여정, 비행기가 영국에 도착해 9시간이 지난 오후 4시 반쯤, 런던공항에 도착했다. 오로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시며 보내는 여행으로 며칠을 지냈다.

런던은 어느 도시보다도 감성이 넘쳐나는 도시였다. 그 감성 넘치는 분위기에 나까지 정신이 팔려 있었다. 고요함이 너무 좋았던 런던, 그 런던의 첫 감성에 심취해본 것은 오후 11시 34분이었다. 런던의 첫 야경, 자정이 가까워지자 버스에서 내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런던의 늦은 밤을 이 감성으로 가득 채웠다. 런던의 길거리에는 사람이 많았다. 여태껏 본적 없는 풍경이었다. 그 낯선 도시의 느낌이 그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냥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렇기에 나는 더 많은 감정을 품고 돌아왔다.

이튿날 나는 화려하지 않아도,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열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대로 공원에 나가 낮잠을 자고 싶었다. 분수를 등지고 앉으니 이따금씩 어두컴컴한 꼴이 보였다. 늦은 오후기도 했지만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었다. 나는 어디일까 광장 한가운데 멈춰 한참을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나 하고 몸을 누이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다. 잔디밭에 앉아 멍하니 음악을 듣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섬세한 유럽의 늦겨울과 불빛에 파묻혀 버렸다.

조금만 더 늦으면 고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가장 난감한 처지였던 건 영국에 도착한 첫날 저녁, 누군가 찾아왔다. 그녀는 같은 테이블에 자리 잡았지만 우리가 내린 시간이 한참 남은 시간. 리버풀에서 숙박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파스타와 비스킷을 김 빠진 콜라와 함께 먹고, 일주일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서로 오랜 시간 동안 와인을 마셔온 사이는 아니었지만, 매일 밤 와인을 마시기로 다짐을 하였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 익숙해진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 좋았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 이 멋진 술 파티가 벌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런던을 뒤로하고 파리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 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터미널 건물이 점점 더 나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발견한 건 터미널 내부의 식당과 기념품들이었다. 터미널 내에는 상점들이 아주 작고 조용했다.

내가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버스라서 그냥 대충 시내로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옳은 방법이었는지는 몰랐다. 파리는 작은 도시였지만, 개선문과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었다. 파리를 찾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인기순위의 명소가 되었고, 수많은 예술작품이 소장되어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파리는 이제 겨울의 파리가 되었다. 파리의 겨울은 간다는 말을 들을 만큼 풍광이 좋았다. 흐뭇한 마음으로 밤하늘의 에펠탑을 멍하니 바라보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어둠이 짙어 지기 시작했다.

강가에 자리 잡은 국립 초상화 미술관은 규모가 작고 건물 벽이 그리 크지 않은데 다가 초상화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다.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서 즐거운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면 언제나 초상화를 그려보는 게 좋다. 점심을 먹고 시간이 남으면 프랑스 음식을 해 먹고 가끔 소시지와 계란 프라이를 먹는다. 대부분 값도 싸고 맛있다. 나는 근사한 점심을 먹었다. 끼니는 수프에 들어간 돼지고기와 맥주였다. 나는 마트에서 10유로짜리 간단한 안주를 사서 먹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 팔고 있는 맥주보다도 맛있었다.

와인을 함께 마시며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다. 저녁식사로 피자와 파스타를 사 먹었는데, 천천히 맛을 보니 괜찮았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도시 풍경과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밖을 향하고 있었으며, 도시의 첫인상이 좋았다. 어두운 저녁이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 도착했다. 파리의 밤을 온전히 느끼며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내일은 이 도시를 벗어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파리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렸다. 창밖엔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버스는 조용했다. 창밖엔 바르셀로나 전경이, 그리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바르셀로나에 처음 도착했다. 벌써부터 감정이 벅차오르는 하루였다. 시내에서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탔다. 숙소에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들은 지쳐서 일찍 나오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

스페인 현지인들에게는 그날 날씨를 물어보면 대부분 "맑음" 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의 문화이다. 람블라스 거리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번화가로 알려져 있다. 거리엔 사람이 가득했다. 마침 바르셀로나에서 덜렁이는 호객꾼들 사이에서 한 밴드가 노래를 틀었다. 우린 밴드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서부역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르셀로나에는 맛집이 정말 많다. 그 중에서도 현지인의 추천을 받아온 곳은 식당으로, 빈자리가 없다. 식사 중 우연히 들려오는 노래는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삼삼오오 모여 음악을 듣고 있으니 좀 더 이동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로 가기로 했다. 길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마음을 녹여 놓았다. 어릴 때부터 머릿속으로 막연히 그려왔던 그런 유럽의 세상에서, “유럽의 골목길이 아름답지만 그 뒤편은 아냐” 하고 생각했다. 내가 자주 가는 유럽 도시들을 제외하곤 나는 시골에 며칠씩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런던에서 하루하루, 파리에서 일주일, 바르셀로나에서 3일을 보내는 날들이 생기며,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그렇게 사는 기분’ 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다른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편이다. 이미 혼자 하는 여행이 익숙해져 버린 지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해졌다. 한 달이 넘게 혼자 유럽 배낭여행을 하며 현지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여전히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쓴 소리도 많았다. 결국은 여행 한 달을 훌쩍 넘어 내뱉었다. 지금은 아쉬워서 기분 좋게 잠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내 속에서 그런 우울한 분위기의 저녁을 먹고 있는 것 마냥. 감정을 쉴 새 없이 정리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다. 어쩌면 여행을 하지 않는 한 날이 많은 이 날이 좋았고, 그래서 더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다.

색다른 나라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런 와중에 다행히 좋은 곳에 가서 새소리를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푹 쉬었다. 살짝 외로웠는데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랐고 덕분에 더 단단해 졌다. 매일 아침 숙소에서 나와 찍은 사진들을 읽으며 그날의 일정을 기록했다.

이집트로 짐을 싸서 배를 타고 떠났다. 바르셀로나 항구에 도착해 고작 1시간 만에 도착한 알렉산드리아는 화려한 현금 동원, 화려한 도시 풍경과 함께 도시 전체가 방송 매체의 배경이 된 곳이었다. 그곳의 비자를 받고 여권을 작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만큼 친절도가 떨어졌다. 몇 군데 휴양지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도착했다.

이집트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박물관 직원들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다. 먼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직원들은 야외 테라스로 나와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날씨라고 한다. 지금은 공원에 비가 와서 전기 설비가 다 끊기고 전화도 안 터지는 등 공원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라미드와 지는 노을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피라미드의 일몰은 스핑크스와 함께 일렁였다. 모래에 비치는 에메랄드 빛 환하고 투명한 물결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모두들 차에서 내렸고 떠날 준비를 하는 여행객들은 서둘러 출발 준비를 했다. 가이드의 재미있는 안내에 따라 피라미드 근처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절벽 아래로 이어져 있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이 빼곡히 서 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차를 세우고 돌아다녔다. 성스러운 의미로 굉장히 매력 있는 장소였고, 바로셀로나에 비해 물가도 저렴하였다.

사막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오아시스를 바라보자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광이 또 하나의 그림이 되었다. 에메랄드 사원에서는 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각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음식, 건축 등에 대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사막의 열기가 오후까지 계속되는 듯했다. 경이로운 풍경에 나를 싣고 사막을 빠져나왔다. 푸른 모래밭에 외국인들이 형형색색의 그림들을 그리고 쏟아져 나왔다. 사막을 하염없이 달리고, 일광욕을 즐기고, 멍 때리기를 했다. 자유롭게 놀다 보니 여행은 어느새 지나갔다.

점점 내 감정도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때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올 때 쯤이면, 나는 나 스스로 감정 상태가 정점을 찍었던 지점 위에 올린다. 감정이 벅차 올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끝에 있는 듯하다. 감정의 풍경 속에 포기하지 않고 도달한 사람들처럼 나의 걸어가는 발걸음도 함께 내딛고 있는 것 같다. 석양의 유혹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바로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의 미국으로. 우리가 뉴욕에 도착한 첫날, 이것저것을 사 가지고 나왔다. 뉴욕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목길을 지나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은 매우 넓었고 큰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노천식당에선 날마다 그날의 음식을 제공했다. 광장에서 내려다본 뉴욕은 날씨가 좋았다. 우리가 자주 가는 미국 드라마에서나 봤던 미국 본토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며 시선을 압도하는 느낌이었다. 새삼 한국에서 놀란 미국의 모습이 떠올랐다.

뉴욕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걸어갈 때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이었다. 그 유명한 뉴욕의 야경이 눈 앞에 펼쳐졌다. 빌딩 숲 위로 어두워지면 더 아름다워질 거고, 밤에는 더 환히 아름다워질 거라 상상했고 신선한 물감을 그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되새기는 건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 이었다. 누군가는 어제가 마치 일 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누군가는 그냥 나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었다면 결국 나의 삶이 마치 과거의 어느 부분처럼 행동하고 경험하면서 변할 거라고 생각한다.

바쁘게 돌아다니니 그나마 한결 마음이 편하고 평온했다. 그래도 아직 못 가본 도시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라 큰 기대 없이 그곳의 풍경과 먹거리, 놀 거리를 보고 느끼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보냈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밴쿠버로 갈 비행기를 예약해 두었는데 출발 하루 전, 서둘러 캐나다 서부로 떠나는 일정이었다. 서부 여행은 일정을 늦게 확장하기 보다는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예약해 두었다. 그래서 서부 여행을 할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 여유 있게 서부를 여행할 수 있었고 좌석도 많이 여유 있었다.

한국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은 김치와 불고기이지만 기내식을 즐기며 먹었다. 기내식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은 피곤했으나 맛은 좋았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있었다. 비가 오지 않는 밤에 호텔에서 조용히 가방을 메고 공항으로 향했다. 딱 봐도 푹신하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가성비를 우선순위에 두기 마련이다.

추운 도시인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가장 공감을 느낄 만한 도시는 뭐라고 했던가. 날이 어두울 땐 거리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나. 캐나다의 밴프에서는 예상하지도 못한 감동이 왔다. 밴프 다운타운은 철도 교통 중심지이다. 밴프에서 눈을 뜨면 바로 강 만나는 밴프 위쪽에 위치한 밴프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다. 밴프에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겨울이 되면서 스키장들이 하나 둘 씩 문을 열기 시작했다.

스키를 즐겼다. 스키 시즌이 되면 캐나다 전역에서 스키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쏟아진다. 스키장들은 슬로프를 코스로 완성해 놓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즐거운 파티로 즐긴다. 스키 슬로프에 몸을 실었다. 스키 슬로프는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기만 하는 기존 스키장과는 달랐다. 기존의 스키 슬로프는 길이 40m에서 120m로 길던 것에 비해 깊이가 얕고 깊은 것이 특징이다.

눈이 녹고 봄이 되자 재미없는 계절이 시작됐다. 여행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으니 여행이 좋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행복지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부인하기도 했다.

재미 없는 곳에서 서둘러 떠났다. 쿠바로 갈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출발한 시각은 오후 1시 10분쯤이었다. 내가 탑승한 비행기는 캐나다에서 쿠바로 가는 비행기였다. 리마에서 페루로 이동할 때는 화이트 와인을 마시기로 결심했다. 와인과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을 마셔보는 것은 이날 하루의 일과였다. 기내식으로는 체리향과 버터가 아주 잘 어울렸다. 입안을 즐겁게 만드는 망고의 진한 맛과 풍미가 좋았다.

이제부터는 좀 쉬면서 다시 다른 지역을 도전하려 한다. 오늘은 하바나 시내로 갔다. 아무래도 하바나 시내로 가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막막했지만, 무덥고 습한 날씨에 아- 하고 기다렸다. 캐나다 공항에서 하바나행 비행기를 타면 도착하는 시간까지 약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미리 예매해 두었다가 하바나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버스를 기다렸다.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역시 공항은 매우 넓었다.

하바나에 도착할 때 까지만 해도 쿠바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평범한 나라였다. 쿠바는 소수의 여행자들에게만 매력적인 여행지였다. 따라서 하바나로 갈 때 까지만 해도 쿠바에 대한 로망은 없었다. 단지 내가 잘 몰랐던 하바나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 더러운 도시지만 치안이 좋고 사람도 풍부해 지금도 관광객들로 끊이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건물들이 많다. 잘 정비된 구조와 선명한 색감이 주택의 분위기를 배가한다. 길거리엔 도시를 상징하는 색깔들로 가득하다. 색감에 반해서 나는 여행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왜 이런 건물을 많이 지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는 다시 발걸음을 움직였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길을 만드는 것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목적지를 정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목적지가 정해진다. 대부분이 다들 걷는 길에 하바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아는 것 같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바나 여행이 끝난 후, 하바나는 아득히 멀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내 취향대로 경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라 좋았다. 하바나 공항에서 탑승할 페루행 비행기를 보니, 런던이나 바르셀로나에서 보던 분위기와 느낌과는 좀 달랐다. 기존에 타던 것보다 훨씬 밝게 느껴졌다. 한 번도 안 갔어도 거의 매번 타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좋았다.

페루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오늘의 여정은 서부 여행의 시작인데, 노선이 서부 비행이라 우리는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는 대로 간식이라도 먹고 곧장 다음 행선지로 향하기로 했다. 고산병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각보다 많았다. 비싼 약값도 고민스러웠고, 시간 소비에 낭비가 컸다. 함께 여행하기로 한 고대 유물들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부탁해서 한 곳을 들렀다.

리마 역에서 기차를 타고 5시간 정도 가면 아마 마추픽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구아스 깔리엔테스라는 버스도 있다. 이 버스는 마추픽추를 간 이후에는 종점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운행한다. 신비의 상징인 거대한 마추픽추를 지나 도착한 잉카제국의 궁전에서는 마추픽추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으로 먹고살 거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었다. 남미의 자유여행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였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마추픽추 투어의 경우, 여행하는 동안 여행을 계속하기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적었고, 이동을 하더라도 운전기사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마추픽추의 화장실도 쓰지 않았고, 하늘에 별 표시가 없어서 방향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길을 잃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마추픽추로 가는 길은 크게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북쪽 끝이 태양 신전이다. 태양 신전은 마추픽추 유적지에 있는 200여 개 마을 중 하나로, 전통적인 마추픽추 건축물의 양식과 인테리어가 잘 보존되어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돌로 만들어진 마추픽추 양식의 천장 구조는 견고하다. 페루의 자연은 경이로워 보였다. 페루의 자연은 고소한 맛 같았다. 영원히 미지의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호주 퍼스로의 여행을 떠났다. 막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여행객처럼 정신이 없었지만 사진은 나름 분위기에 잘 동화되어 있었다. 땅을 두 발로 직접 밟아 가는 느낌이랄까. 눈앞에 천국이 아닌 천국이 보였다. 아웃백의 암벽은 거대한 지각 위에 32km의 긴 거리 내리막이다. 거대한 암벽과 고원에 펼쳐진 광활한 초원은 장관이었다. 이곳은 바람이 거칠게 몰아쳐서 주저앉아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이러다가 좁은 폭으로 폭포의 물이 더 깊고 넓어진다. 강의 앞이 무너지고, 호수의 물이 깊어져 온 세상이 하얗게 되면서 결국 세상은 박물관이 되는 것이었다.

호주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떠난 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때도 있었다. 피크닉 기간이 짧아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없어 여행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없었고, 그래서 더 아쉬웠다. 드디어 홍콩을 향하고 있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와 긴 여행의 체력적인 부담과 함께,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홍콩역으로 향했다. 우리는 내릴 곳에 내리자마자 설레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었고, 함께 여행하기로 한 친구들은 이미 다 정리하고 이미 다녀온 다른 도시로 가기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홍콩에서 생각을 정리한 뒤 내 호주머니를 털었다. 홍콩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배가 고파질 무렵,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도저히 짐작이 되지 않았다. 나를 가로막고 힘들게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의 이름으로 승화시키며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었다.

홍콩에서의 사색은 들렀다 가는 대로,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었다. 어쨌든 여행의 재미를 위해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상해 일 것이다. 상해는 많은 건물들과 수많은 인파 때문에 여행하기 아주 좋은 도시였고, 로드 트립 자체도 넓은 의미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었다. 반드시 해보아야 하는 여행이라고 다짐한 후,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상해에서는 7일, 베이징에서는 11일, 그리고 쓰촨에서는 19일 동안 여행을 할 생각으로 출발했다.

빠르게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그리고 기차는 오늘도 어김없이 예정된 것보다 조금 늦은 밤에 도착했다. 한숨을 돌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밖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조금만 서 있어도 숨이 가빠왔다. 이대로 가다간 지치고 힘들어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비가 곧 비가 그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오늘은 좀 쉬어야 겠다 다짐했다.

인도가 내게 그렇게 호의적인 첫인상에 젖어있는 나라는 아니었다. 다만, 국경을 377번 국도를 달리는데 왼쪽 갈래에서 국경에 이르는 길이 잘 다듬어져 있었다. 오른쪽에서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오른편에는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있는 걸 볼 수 있다.

피곤한 인도에서 지내는 동안 온몸이 흠뻑 젖었다. 한국에서 인도로 떠나온 지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몸이 좋지 않아 뉴델리의 더운 날씨에 지쳐갔다. 뉴델리는 축축하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곳이어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었다. 여행은 적당히 즐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어떤 날은 가슴이 답답하고, 또 다른 날은 침대에 누워 잠이 올 것 같아서 도저히 침대에 들 수가 없는 날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반복해야만 한다.

정신이 분열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와 희망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목적인 인간이 되어 생을 살아 보기로 다짐한다. 비록 세상은 흑백의 세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숨 쉬는 문화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얼굴에 전혀 기색도 없는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삶이 발버둥쳤던 수많은 공통점을 단 한 가지 씩 가지고 있었다.

죽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행운이 따르는 일이지만 너무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행운을 찾을 수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경험했던 일도 단 한 순간도 이와 같아서 불행히 비켜갈 뿐이다. 내 머릿속은 마치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희미해 진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것이 내 본질이 아닐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인간은 모두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선택이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시킬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하나의 길은 같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줄 수 있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무엇 있겠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넘겼던 거 같다.

새로운 것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적인 것이다. 나는 죽지 않았고, 아직 죽지 않았다. 당연히 마음이 있을 때 에야 알게 된다. 사실 내가 언제 마음을 정했는지, 그 때 기분이 좋았는지, 행복했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도시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델리의 버려진 기차역, 델리의 첫인상은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인도의 풍경이 그대로 드러난 곳에서 나는 자유롭게 걸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이곳으로 여행 오면 행운이 기다릴 거야. 무모하게 위험한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는 언제나 생겼다. 내가 꿈꾸던 잊기 위한 여행은 계속해서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세상이 참 예뻤고, 어딜 가든 사람마다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떠날 때마다 다른 곳에 비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좀 더 쉬울까? 라고 조금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듣고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싫어했다. 낯선 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쉽지 않은 건 물론, 기나긴 여행을 즐길 체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달이 훌쩍 넘는 시간을 함께한 고독한 싸움이 시작됐다. 고독과 만남이다. 걷기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익숙함에서 헤어날 수 없는 친구와의 재회를 시작했다. 지난 여정을 곱씹고 나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발등에 붙였다. 나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걷는 사람으로서 느껴야 할 육체와 마음이 피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끔 바람을 느꼈다.

순례길을 걸으며 사람과 나누는 대화와 시간. 좋은 호스트와 여행자들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감정과 문화이다. 발을 이끌고 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다. 다 함께 한적한 잔디밭에 모여 앉아 같이 사진도 찍고 나름 의미도 생각했던 대화도 나누고 그랬다. 그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 와서 여행 이야기를 꺼내놓고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했다. 다 같이 찍은 인생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홀로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의 용기와 위로가 있었다. 여행 중 만난 사람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사람들과 헤어졌다. 이내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헤어짐과 만남이 이어질 것이 뻔했다. 결국 평범한 일상은 모두 없애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길에 발을 옮겼다.

길은 험난했다. 더 힘든 여정이기에 걱정도 된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땅도 질어졌다. 비포장 도로와 움푹패인 도로를 걷고 또 걸었다. 실제 거리는 멀지 않았는데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는 건 쉽지 않았다. 옆에서 빵빵거리며 봤던 주황색의 거대한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걸까. 굳이 지나온 길을 다시 걸었다. 일부러 통과해서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부러 더 멀리 달아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거리를 누비며 돌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이 닿을 수 없는 먼 거리임에도 발길을 쉽사리 뗄 수 없었다. 발을 떼기 시작하면 어디서 떨어져도 아프다는 말이다. 이러다가 순례길에서는 발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 5000보 이상 되는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걸어갔다. 그 이후부터는 순례자처럼 보였다. '아, 드디어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걸음을 옮겼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은 너무도 험난했다. 비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내렸고, 눈꺼풀을 우겨 넣은 후 흠뻑 젖은 몸을 겨우 내민 채 잠이 들었다. 뻗어 있는 칼바람이 얼마나 단단히 느껴졌는지 새삼 깨닫는다. 그렇게 잠을 청하는 중에도 문득 밖을 보니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드디어 배낭을 벗으니 긴장이 무색하게도 풍경은 새롭게 다가왔다. 무섭다기 보다는 주변에 비교적 덜컹거리는 한적한 곳에서 꽤나 매력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을 가다듬기라도하듯, 살포시 내려 피로감이 날리는 곳으로 나아갔다.

사색하기 위해 여행을 택한 건 아니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처음부터 일정을 확정 짓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렇기에 즉흥적으로 결정하기 좋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종종 벌어진다. 나중에는 혼자 긴 일정을 따라가기 보다는 가끔씩 가이드의 도움을 받았다. 일단 혼자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걷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가능하다면 장기 여행도 생각했다.

피곤한 생각들이 길의 시작을 막아버린다. 그렇다고 당장 앞으로 나가도 되는 건가. 현실과 다를 것 없는 이런 환경에 지친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나는 길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녀 봤지만 눈에 담아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지나온 삶이 어땠는지 고요한 아침을 보낼 수 있었다. 고요함을 선물하고 싶었던 길, 그 고요함이 가장 그립고 고맙던 마음을 비로소 전해주었다.

낙엽을 치며 나가는 길은 너무 피곤했고, 사방은 흐려지고 구름만 점점 더 짙어져 한 달이라는 시간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소와 만날 때가 됐다. 순례길에서 나서는 마음은 '오르막이 좋다' 는 생각이다. 너무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깨달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다. 시간이 허락하면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목적지가 없는 것임에도 여행은 늘 같이 하고 싶은 것이다.

걷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혼자서 목적이나 결과에 도달하기 힘들 땐 배낭에 걸터앉아 가며 오래 걷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꽤 오래 간만에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었고, 나는 가끔 혼자가 된 지금, 관계는 더 끈끈해 졌다. 일단 혼자서 길을 만들고 나 자신에게 그 놓인 문제를 드러내 놓고 공유했다. 물론 나만의 비틀린 자화상은 있겠지만 말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피곤한 상태와 슬픔이 있을 법한 이 풍경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자리했다.삶이란 무엇인지, 나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하려 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식 허울이 아닌 나 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술이 되었다. 나는 누군가의 자화상이고, 나는 누군가의 예술가다.

삶은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균형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정한 삶의 양식과 취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지내는 동안 누군가에게 어떤 삶의 경험과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나누고 또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어떤 삶의 현장에서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이다.

깨달음을 얻은 후 나는 걸음을 멈추기로 했다. 그리고 한동안 내가 지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다지고, 준비할 시간을 가졌다. 벌써 저녁 10시가 넘었다. 달빛이 너무 강렬한 밤이라 짐을 풀고 눕고 싶었다. 본향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한다. 어두운 밤은 붉은 노을 진 밤보다도 더 붉은 노을을 머금은 것 같은 느낌이 간절하다. 새벽 일출을 보고 잠에서 깨어났다. 짐을 정리하며 생각보다 빨리 방향을 틀었다. 그날의 아침 공기가 상쾌해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의 걱정과 추위를 씻어내는 탁월한 날씨였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려 했던 어느 날, 그 순간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평생을 바쳐왔던 의지와 노력이 번쩍 떠오르는 장면이다.

여행이 삶을 구원하는 진리라는 환상에 대해 생각하면 구름에서 헤어날 수 없는 느낌이다. 여행을 기대하며 얻어낸 의문은 아마도 여행의 초기에 형성된 환상적인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리라.

내가 살아온 역사를 생각해보니 방황의 시기도 있었고, 고뇌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상처 없이 잘 지내려면 그것보다 훨씬 힘든 일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 나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에 대해 생각했다.

말은 생각을 드러내고 가슴에 지속적인 감정의 반영을 가져오기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반응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좋다 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싫다 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으며, 억지로라도 감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감정 표현은 최대한으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다만, 우두커니 서서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여행을 통해 사람들이 여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배낭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성을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남미를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보다 자주 만나서 밥을 먹고 싶었고, TV 시청을 하고 싶었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다양한 만남을 위해 용기가 필요했다. 여행이 결국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 고로 이제는 떠나야 한다. 배낭을 메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길은 저마다의 목적지로 이어진다. 오늘도 어딜 가나 찾아보는 곳마다 반짝였다. 이곳에서는 저녁에 석양을 보며, 그랜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으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조명조차 없던 거리엔 분명 큰 이벤트가 있었다. 바로 거리의 사람들이 드러눕고, 눈이 쌓여 있던 풍경에선 황금빛으로 꽃피는 예수의 형상이 보이는가 하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떠날 곳이 많은 것은 사진에서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풍경과 만날 때 비로소 멋진 풍경이 나온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사진 속 풍경처럼 이른 바 '여유' 를 찾는 것도 좋은 여행 방법이다.

계속 마음을 열어서 어렵던 시기를 지나 점점 좋아져 가고 있다. 나는 나름의 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의미 없는 일들도 많았다. 그래도 지나온 여행을 돌이켜보면 나는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나 스스로 배낭을 메고 여행하는 것이 여행에 대한 의지를 키우고 여행자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는 의식도 가지게 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세상 속에서 계속 내 존재는 풍요로워 보였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앞으로의 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해주었다.

살기 좋은 세상은 조금씩 찾아 왔기 때문에 이번 여행의 또 다른 목표는 행복을 만드는 것이었다. 죽음에 해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해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여행을 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그저 바다를 보고, 누워 듣고 살 뿐이다. 바다가 보고 싶으면 일단 바다 한 바퀴를 걷고, 쉬고 싶으면 한 시간동안 카페에서 쉬고, 카페에서 파는 커피 맛이 괜찮다면 또 언제든지 이 카페를 떠올릴 수 있다.

따라서 내 길은 무엇이든 옳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경험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삶 속에 핵심적인 제 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삶과 그 이상의 경험은 가치 있다. 다만 그 소중함과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 그게 바로 가꿔야 할 매력적인 방법이 된다.